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3월 한 달 동안 점심, 그리고 오후찬양예배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도 없습니다. 단, 새벽기도회는 있습니다.
3. 새해 '축복의 가정심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방 받으시는 가정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3/14) 청소담당은 캄보디아 목장(이현호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만연해 있습니다.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하루 속히 이 질병 종식되게 해달라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3월 8일	3월 15일	3월 22일	3월 29일
예배기도(오전)	박성대 집사	이준화 집사	신재준 집사	조정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				
주일식사담당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마을 전도팀을 위해서, 새해 축복의 가정심방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124번(시 22:21-23).....	다같이
*경배찬송 23장(통 23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458장(통 513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성대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요 2:1-11.....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인생은 잔치다'.....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신명기 32장 2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⑧ 허영진 목사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30 사순절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봄은 희망이다

봄은 희망이다. 창 너머로 보이는 느릅나무의 가녀린 가지에도 봄이 맺혔다. 십자가 위로 날아가는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청신(淸新)하다. 겨우내 언 땅이 녹아 질척거리는 시기 또한 이 맘 때다. 어디서나 생명의 약동을 느끼는 계절이 찾아왔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봄은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현실을 잘 반영해 준다.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이다.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방역조치), ‘폐쇄’ 같은 낯선 단어가 이젠 오히려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다. 어쩌다 겨울이면 방한용이나 미세먼지 차단 대안으로 사용하던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되었다. 이마저도 공급 물량이 떨어져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겨우 손에 몇 장을 질 수 있는 형편이다. 그마저도 포기한 이들이 부지기수다. 그만큼 이 전염병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종교계의 모든 종교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개신교의 예배도 심각한 위해를 받고 있다. 이웃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주일 성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해 이래저래 서운하고 답답한 한 주를 보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예배의 소중함이 마음 한 구석에 묵직이 깃든다. 본의 아니게 얻게 된 저녁 있는 삶, 넘어진 김에 쉬어 가기로 한다. 연일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넘쳐난다. 심란해서 교회주변을 정리했다.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 통로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사다가 붙여보기도 하고, 교회 여기저기에 흩어져 겨우내 묵었던 낙엽도 말끔히 치웠다. 겨울을 지나며 봄이 되면 해야 할 일이다. 겨울에 시작해서 결국 봄에 도달한 셈이다. 우울한 봄이지만, 이 상황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봄은 희망이다. 다만, 예배의 소중함처럼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이었는지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한다.

Written by 허영진